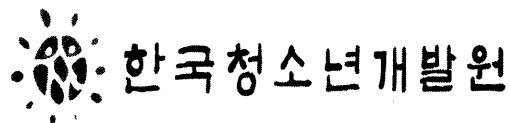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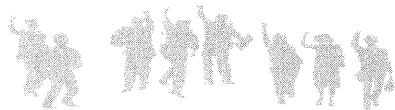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김 영 호 / 행정학 박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
- 「ISSUE PAPER」는 국내외 청소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전문 연구서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 내외 전문가들의 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본 서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 및 저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정보학술센터
Tel (02)2188-8844, www.youthnet.re.kr

목 차

I.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의의	1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유형	6
3. 시사점	37
II. 주요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례	39
1. 미국	39
2. 영국	43
3. 독일	48
4. 일본	51
5. 프랑스	54
6.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9
7. 시사점	65
II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	71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71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개요	73
3.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81
IV.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발전 방향	83
V. 부 록	87

I.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의의

방과후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교육이나 보육을 위해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제공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고, 국가는 정부부처 등을 포함한다. 가정에서 제공하는 사교육 활동도 방과후 활동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보다 좁은 의미, 즉 가정에서 제공하는 사교육 활동을 제외한 학교나 지역사회, 국가가 방과후에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의 공공적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방과후 활동은 국가·사회적으로나 학생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방과후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의 기초

정규교육과정은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 정규교육과정은 학습지도에 많은 중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 가치관, 신체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방과후에도 제공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 정규교육과정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방과후에 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규교육과정과 협력하여 학생의 지·덕·체를 최대한 발달시키고 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은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2)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방치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비교육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비행이나 탈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의 13.6%와 경제적으로 최하층 가정 학생의 32%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부모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함께 지내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있다는 34%,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는 3.8%로 나타나 90%의 학생들이 성인의 보호가 없어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의 경우 소외감을 느끼고 비행·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결식, 학습부진 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방과후 활동은 방과후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는데 매우 필요하다(청소년위원회, 2005).

3) 과도한 사교육비 감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저렴한 방과후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방과후에 학생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매우 많아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2003년 기준 13조 6천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20%가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기준 72.6%로 2000년에 비해 14.4%가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83.1%, 중학교 75.3%, 일반계 고등학교 56.4%, 실업계 고등학교 19.2%이다. 2003년 기준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초등학교 209,000원, 중학교 276,000원, 인문계 고교 298,000원, 실업계 고교 180,000원으로 평균 238,000원이다. 여성가족부(2005)에 의하면, 초등학교 전체 아동의 보육·교육 평균 비용은 월 176,400원이다. 국민의 73.5%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88%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방과후 활동은 이러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교육비를 감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학부모의 불안감도 완화시킬 수 있다.

4) 사교육 차이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 현상 완화

사교육 차이로 인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차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격차를 고착·강화하며 학력의 대물림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가구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부실한 공교육과 맞물려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 대물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육개발원(2003)에 의하면, 가정의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의 사교육비는 연간 1,670,000원인데 비하여,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는 4,360,000원으로 그 차이는 2.6배이다. 또 고위관리직 가정의 사교육비는 농림어업직 가정의 2배에 달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292,000원)는 최하위 10% 가정(36,000원)의 8배에 달하였다(동아일보, 2005.8.9). 그리고 초등 1~3학년 방과후 활동 비용을 조사한 류방란(2005)에 의하면, 고소득 가정에서는 31만원 이상의 28%를 차지하였으나, 저소득 가정에서는 1.7%에 불과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하는 방과후 활동에도 차이가 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방과후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바로 집으로 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최상층 가정의 학생은 70%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최하위층 가정 학생은 56%가 참여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방과후에 이용하는 시설, 기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최상층 가정 학생의 사설학원 이용율은 29.8%인데 반해, 최하위층 학생은 9.2%에 불과했다. 그리고 최상층 학생이 친구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6%인데 반해, 최하층 학생은

48.6%였다. 여성가족부(2005)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학원을 가는 비율이 달라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월 소득 150만원이 주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0만원 이하에서는 45%가 일반 학원을 갔으나, 그 이상에서는 70%이상이 일반 학원을 갔다.

국가, 학교,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양질의 저렴한 방과후 활동은 사교육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와 학력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끊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5) 저출산을 완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저출산 문제는 한 자녀 가정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자녀 가정은 아동이 형제관계 속에서 어울려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동들이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요한 저출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비이다. 한국인구학회에서 20~40대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호하는 출산정책에서 사교육비 등 교육비 경감(40%),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16%)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양질의 저렴한 방과후 활동은 교육비 부담에서 오는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6) 가정유형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3세대 가구가 감소하고,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유형의 변화는 가정의 아동 양육기능의 약화,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 1975년~2000년 간의 가족 형태 변화 추이를 보면, 조부모와 부부, 손자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구는 19.2%에서 13.4%로 5.8%로 감소하고, 부부, 자녀가 사는 1세대 가구는 6.7%에서 10%로 증가

하였다. 3세대 가구가 감소하고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방과후에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공공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보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은 1975년 0.5%이던 것이 1985년 1.0%, 1995년 1.5%, 2003년에 3.5%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부모 가정은 1995년에 비하여 2000년도에 0.5%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1990년에 비하여 87만명 증가한 265만명이고, 여성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 15.7%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3).

이혼을 한 경우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부모 중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 경우 부나 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방과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7) 기혼 여성인력 활용기회 제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보다 기혼 여성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표 I-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단위 : %)

	1980년	1990년	2003년
기혼	40.0	47.2	48.7
미혼	50.8	46.5	47.2
계	42.8	47.0	48.9

* 자료 :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연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과중한 양육 및 가사 부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양육비용,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60%가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지도(55.2%), 정서 및 사회성 교육(21.0%), 돌 볼 사람/기관이 없어서(12.8%), 집의 환경이 열악해서(10.9%),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5). 돌볼 사람이 없거나 집의 환경이 열악한 23.7%의 가정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활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기혼 여성의 취업은 남성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M자형의 참가율(남성은 역 U자형 참가율)을 보인다. 즉, 여성의 경우 20세 중반까지는 상승하다가 20~24세부터 30~34세까지 결혼과 육아로 인해 빠른 감소를 보인 후, 이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M자형 참가율을 보인다. 특히 여성의 만혼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최저 연령층이 25~29세에서 1995년 이후로 30~34세로 이동된 형태의 특징을 보인다(여성통계연보, 2003).

이외에도 방과후 활동은 고용효과의 창출을 가져온다. 방과후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국의 수 많은 기관에서 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지도교사와 관리자들을 필요로 한다. 방과후 활동은 지역사회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에 투입되는 재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학생이 성장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비행을 하여 학교를 그만 두거나,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더 많은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 방과후 활동에 투입하는 재정은 현재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유형

1)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유형

과거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시행되어 오던 방과후 활동이 내실화되고 활성화된 주요계기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2.17)과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커다란 관심 때문이었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포함된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표 1-2>와 같다.

〈표 I -2〉 사교육비 경감대책(일부만 제시)

영역	사교육비 경감 10대 대책	시 기
사교육수요 공교육 체제내 흡수	○ e-Learning 체제 구축을 통한 수능과외 대체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통한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을 통한 탁아수요 흡수	단기 대책

현재 방과후 활동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 수준별 보충 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유형별로 성격과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① 추진배경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고등학생의 교과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감소하고,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을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강제적 운영 금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심화하는 학습 실시
 - 학생의 심신건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교사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생, 학부모의 필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수준별 강좌개설 및 선택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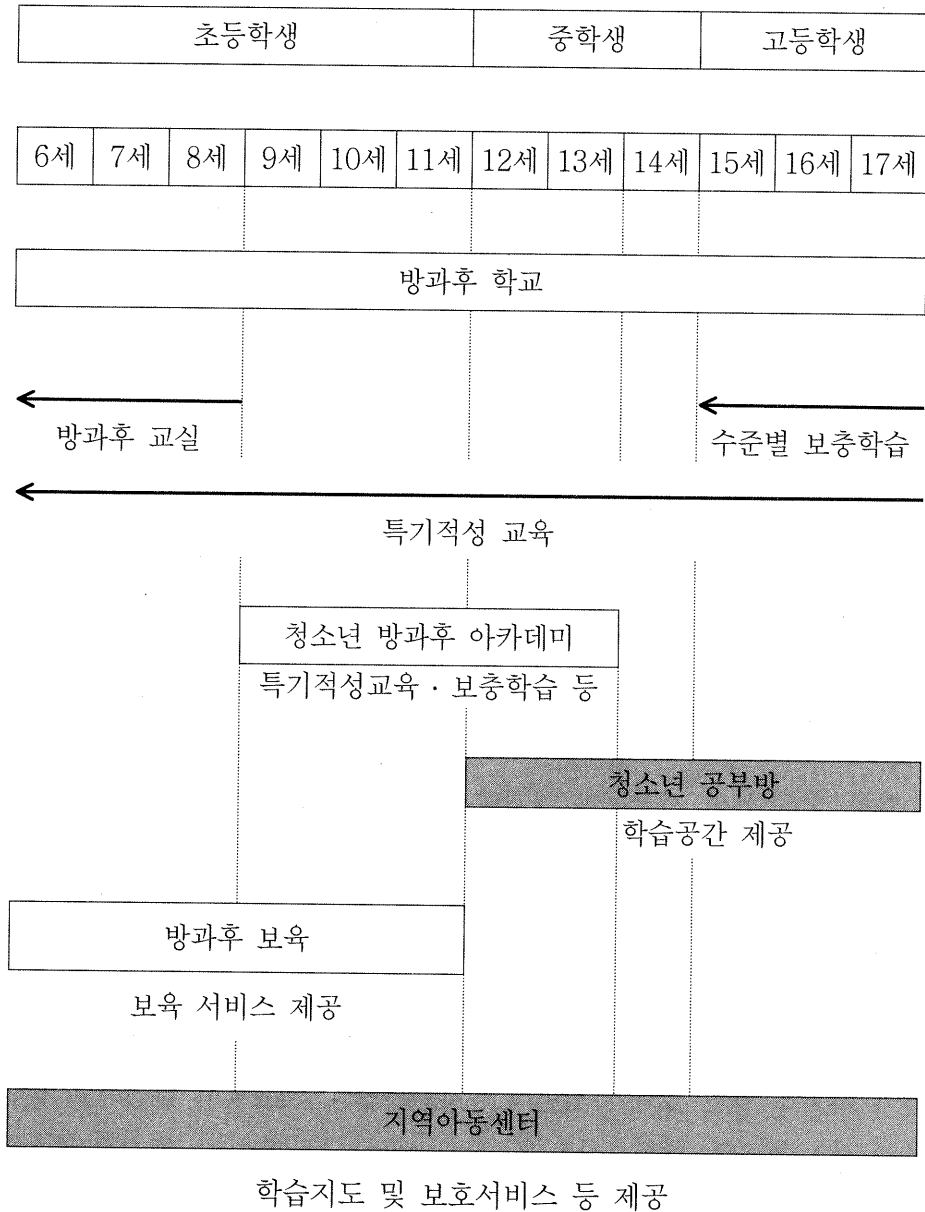
〈표 I-3〉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부처 및 참여 청소년 수

(2005년 10월 기준)

부 처	프로그램		참 여			비 고
			학교 비율(%)	학생 비율(%)	학생수	
교육 인 자원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05.6)	중	27.6	6.7	75,000	· 방과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라는 운영 체제로 운영 시도 (’05년도부터) · ’05년에 48개교 시 범운영(교육청별 3 개교)
		고	77.1	59.8	1,040,000	
	특가·적성 교육 (’05.6)	초	96.7	33.1	1,313,380	
		중		22.0	437,508	
		고	인문	6.6	77,762	
			실업	29.9	135,852	
			계	13.1	213,614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05.6)		12 681학교 875교실	0.78	15,538	
보건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 저소득층 학생 : 만 6-17세 · 초·중·고생 23,347명 · 미취학 1,564명/초등 18,348명/ 중 2,880 /고 410명 · 895개소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초 4 - 중 2 : 2,350명 · 만 9-13세 · 전국 60개소			· 2005년 시범 운영
	청소년 공부방		· 저소득층 학생 : 만 10-14세 · 초5 - 중2 : 27,333명 · 495개소			
여성 가족부	방과후 보육시설		· 만 6-11세 · 초등학생 1-6학년 · 23,321명 · 1,459개소 · 전담시설 266개소 7,460명 · 통합시설 1,213개소 15,861명			· 방과후 보육은 방 과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 로 하기로 함에 따 라 전담시설 확충 계획 중단

-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풀의 구축 및 활용
 -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인력 활용
 - 지역사회 유능한 자원인사에 관한 인력풀의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 관리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 농어촌 지역 강사비 보존 및 교통비 지원

〈표 I -4〉 사업별 대상 청소년 및 기능 비교



※ : 저소득층 청소년중심 : 모든 청소년 대상(저소득층 청소년 포함)

*자료 : 기획예산처 등(2005.10). 아동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방안 · 방과후 활동지원 및 제도개선 협의회 1차 회의자료.

② 실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실시되며, 대입과 관련된 주요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외국어, 직업탐구 영역). 한 과목 프로그램은 20시간 단위로 운영되며,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끝난 후에는 자율학습(밤 10시 정도까지 실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되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 학생들은 월평균 4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월평균 수강료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약 27,000원 정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수강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프로그램의 예는 <표 I-5>와 같다.

주로 학교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며, 필요시 학원강사, 다른 학교교사, 지역사회인사도 활용한다. 현직 교원의 26%가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 참여율은 1.4%이다.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단위로 결정한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과거부터 수준별 보충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주거나 학교에 교재개발비를 주어 개발하게 하고 있다. 개발된 교재는 중앙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수업의 질을 높여 사교육과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사들이 강좌명과 강의계획서를 인터넷에 탑재하고 학생이 선택하게 하여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고,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폐강이 된다. 경쟁체제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사교육 감소 효과를 보면(한국교육개발원, 2004.9), 학생의 21%, 학부모의 28%가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 20.0%, 광역시 16.5%, 중·소도시 20.2%, 읍·면지역 36.6%로 나타나 읍·면지역이 가장 높다. 따라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읍·면지역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감소여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보충학습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대전송촌고등학교(2004)는 31.6%(392명)의 학생이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이후 사교육을 끊었으며, 37.4%의 사교육비 절감을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표 I - 5〉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프로그램 예시

구분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프로그램
언어 영역	고전문학, 수능대비 언어영역, 수능고전시가특강, 고전문학기본, 수능현대시특강, 집중현대문학, 시작현대문학, 쉬운언어 독해, 언어독해기본, 언어영역(기본)핵심유형 집중분석, 수능만점을 위한 언어영역 유형독해, 언어영역 기초부터 탄탄히, 언어영역 첫걸음, 고전문학, 현대문학기초, 비문학독해 기초유형, 비문학독해 실전, 수능언어 영역최상위 강좌, 재미있는 논술, 구술면접 등
수리 영역	수능대비 수학 I 특강, 초월함수 미분적분개념 특강, 즐거운 수리 탐구수 I 특강, 쉽고 재미있는 수II(초급), 쉽고 좋은 수학10-가(고급), 재미있는 수학10-가(초급), 재미있는 수학10-가(중급), 기본수학 정석(초급), 기초수학, 수화심화반, 내신을 위한 수학10-가, 기본문제 특강, 실력다지기 수학10-가 문제풀이 특강, 수학10-가 나, 수학 I 보통, 수학 II, 수학 I 기초, 수학 I 심화, 수학기초 등
외국어	영어듣기입문, 영어듣기도약, 수능듣기실전 전략, 영어독해시작, 영어독해입문, 영어독해기본, 수능발전독해, 독해달인 문법편, 수능실전독해, 영문법기초, 수능필수문법, 외국어영역(입문반), 잘 틀리는 문법유형 한번에 잡기, 영어어법 완성, 수능영어, 유형별 독해, 고급독해 등
사회 탐구	수능특강 국사, 자료탐구 국가, 만점 도전 세계사, 차근차근 세계사, 눈에 떠네 윤리수능의 핵, 개념정리 사회탐구, 개념정리 사회문화, 세계지리세상, 한국문화이해, 사회문화, 한국지리, 실전경제, 국사기초, 국사심화, 도덕심화, 일반사회기초, 지리기초, 국사 I 문제풀이, 탐구사회문화, 즐거운 지리, 향토역사 등
과학 탐구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물리II, 화학II, 생물II, 물리일반, 물리실험, 화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생물실험, 공통과학(화학)기초, 과학의 기초, 생물 I 실력다지기, 수능대비 과학특강 등

③ 문제점

첫째, 수업면에서 학생들은 아직 방과후 보충학습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방과후 보충학습이 실력 향상이나 진학에 주는 도움 정도를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렇다’(30.2%)보다 ‘아니다’(39.6%)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잘모르겠다 : 30.2%).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여러 학교에서 여건 때문에 아직 교과별 ·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못하다.

2004년 1학기와 2학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과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물어본 경로가, “기회가 주어져서 희망대로 선택하였다”가 1학기에는 15.7%였으나, 2학기 28.7%로 늘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1학기 69.5%에서 2학기 52.4%로 줄었으나,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할수록 자신의 능력에 따른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시 이를 잘 반영해야 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I-6>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성적별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이 높을수록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I - 6〉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학생 반응

성취수준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빈도
상위10%이내	68.9	31.1	441
상위10~30%	63.7	36.3	870
중 30~70%	56.6	43.4	1,814
하 70% 이하	55.3	44.7	508
계	59.6	40.4	3,633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수준별로(2학급이면 3수준 이상, 3학급이면 4수준 이상) 분반한 다음, 수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교실 수와 교사 수의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교실 수, 교사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능력이 매우 다른 학생들이 한 반에 있어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셋째, 편성 · 운영되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동일 영역에서 대부분 20시간 단위로 편성되는 강좌들이 내용, 심화수준, 난이도 등에 있어 전후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넷째, 교사들이 자료 부족,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시중 참고서에 많이 의

존하여 지도하고 있다. 국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하여 주고 있으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교육개발원(200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활용되는 교재는 시중참고서(47.1%), 교사 개인이 만든 교재(23.3%), EBS수능교재(16.3%),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8.8%), 교과서(3.6%), 교육청이나 학교가 개발해서 준 교재(0.9%)등 이다.

다섯째, 실력있는 외부 강사 참여가 부족하다. 부족한 강사료, 외부 강사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거부감, 지역에 활용할 인사 부족 등으로 인해 실력있는 외부 강사의 참여는 매우 낮은 편이다. 외부강사의 활용부족은 다양한 강사와의 경쟁, 같은 학교 내 같은 교과 담당 교사들 간의 경쟁에 적응이 안 되어,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이 정규수업 후에 보충수업을 하고, 자율 학습까지 지도하는 경우, 신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보충수업 준비로 정규 수업준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섯째, 방과후 보충학습 시행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맡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행정업무 담당을 기피하여 젊은 교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장학관리 면에서 보면, 방과후 보충학습의 질관리 체제가 미흡하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받고 이를 프로그램, 강좌별 수업개선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교사의 46.2%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교육청 장학, 학교자체 연찬이 미흡한데, 교사의 64.2%가 '교육청의 장학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자체 연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7.7%이고, 27%의 학교는 전혀 하지 않았다.

④ 개선 방안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과목 선택권이 없을 때, 학생과 학부모는 강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 선택권 확대는 프로그램과 수업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사교육기관에서는 수준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이 수준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도와 참여도, 사교육기관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무학년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별도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수준별 과목을 편성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보다 많이 활용해야 한다.

셋째,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은 방과후에 또 다른 수업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이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사가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문제풀이식, 설명식 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편성이나 수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단위 강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과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 행정업무를 담당한 교원에 대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이 적극성을 지녀야 보충학습이 질 높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및 관리적 책임을 지는 교장, 교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섯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강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초빙하여 활용토록 한다. 교통비, 오고 가는 시간 소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외부 강사료의 차별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여 우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한다.

일곱째,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장학이나 자체 연수 활동을 활성화 하여 수업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여덟째,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관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탑재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정보는 지역, 학교규모, 학생수준, 과목 등으로 분류하여 교사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특기 · 적성 교육

① 추진배경

초 · 중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실시되고 있는 특기 · 적성교육은 교과학습보다는 학생의 인성이나 특기 · 적성, 소질 등을 계발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소질 · 적성 계발 및 취미 · 특기신장 교육 기회 제공, 인성 · 창의성 · 재능교육 실시
- 특기 · 적성교육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 학교밖 사교육 욕구의 학교내 흡수로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② 실 태

특기 · 적성교육은 교과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보다 초 · 중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과목 프로그램은 20시간 단위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보통 주당 1~2개 프로그램을 듣고(초 1.4개; 중 1.5개; 고 1.9개), 주당 2~3일 교육에 참여한다. 참여 시간은 1~2시간(34.1%), 3~4시간(35.4%), 5~6시간(16.3%), 9시간 이상(9.7%)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표 I-7> 참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학습 관련 강좌를 듣는 비율이 높아진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컴퓨터(50.3%), 일반교과관련 프로그램(22.4%), 음악(19.7%), 미술(10.3%), 체육(8.9%), 취미(5.7%), 기타(11.6%) 등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교과 관련 프로그램(36.1%), 음악(17.4%), 컴퓨터(13.7%), 취미(11.0%), 체육(9.6%), 미술(8.2%), 기타(19.2%) 등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교과 관련 프로그램(60.0%), 컴퓨터(14.3%), 체육(5.3%), 취미(4.9%), 음악(4.1%), 미술(3.3%), 기타(31.8%) 등이다.

교과학습 의존율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 활용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회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강사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83.7%, 중학교 30.2%, 고등학교 13.4%이다. 2004년

현재 182개 지역교육청에서 648명의 순회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월 평균 수강료는 초등학생 21,000원, 중학생 16,000원, 고등학생 23,000원이다. 수강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13,000원~28,900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부모는 사교육비 경감(36.0%), 학교에서 참여하라니까(25.7%), 자녀를 학교에서 있게 해서 안심이 되어서(20.0%) 등의 이유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부모의 경우 만족(38.8%), 보통(51.2%), 불만족(10.1%)으로 나타나, 불만족보다 만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표 I -7〉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예시

영역	프로그램 내용
일반교과관련	소설쓰기, 시(시조) 짓기, 고전문학 연구, 중국어 회화, 독일어 작문, 일어소설읽기, 영어 영화감상, 영어 연극, CNN청취반, 수리탐구반, 실험·탐구반, 식물·지질·조류탐구반, 발명반, 문화유적 답사반
음악	합창,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 리코더, 기타, 작곡, 음악감상, 국악, 민요, 시조창, 단소, 대금, 가야금, 거문고, 고적대, 해금, 피리, 판소리, 합주반
미술	붓글씨, 한국화, 회화(수채화, 유화), 조각, 데생, 지공예, 도예, 디자인, 판화, 공예
체육	축구, 배구, 농구, 검도, 배드민턴, 볼링, 당구, 탁구, 수영, 유도, 태권도, 테니스, 스케이트, 한국무용, 발레, 씨름, 리듬체조, 체력단련, 골프, 씨름, 사격, GATE-BALL, 사물놀이, 탈춤, 학춤
컴퓨터	워드, 인터넷, 그래픽, 정보통신, CAD, 컴퓨터 조립, 파워포인트, 엑셀, OA
취미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동화구연, 웅변, 연기반, 방송반, 바둑, 속독, 신문제작, 방송제작, 비디오 영화제작, 연기, 연극놀이반, 자기표현 연극놀이, 풍물반, 사육 및 재배, 제빵, 요리

③ 문제점

특기·적성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은 학생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초·중학생의 참여율은 33%, 22%로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특기·적성보다 교과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특기·적성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설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참여 이유를 학부모에게 물어본 결과,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46.9%), 교과보충이나 심화프로그램이 없어서(15.7%)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왔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교과학습, 시험이나 입시, 영어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주지 교과 학습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이 학생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시험, 입시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욱 선호하는 것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둘째, 수준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학생은 재능 영역별로 다양한 수준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수준별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크지 않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과 학생의 발달상황은 누가적으로 기록되어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은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이유로서 작용한다.

넷째, 우수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의 수강료를 올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강사료가 낮은 경우,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높은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등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렵다. 현재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특기·적성교육 강사로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방과후 교육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보다는 생계유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특기·적성교육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

다.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며,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학생관리, 사후관리 등에서 효과가 적다. 지원금 운영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지원금 집행 조건의 경직화로 학교 특성을 고려한 자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섯째, 학교장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학교장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커다란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소극적 관심을 갖는 학교장들도 있어 활성화가 어렵다.

④ 개선 방안

먼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질문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학생의 요구조사에 의한 강좌개설을 1순위로 선정(각각 44.7%, 54.2%)하였다. 학교, 교육청은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는 노력을 매년 해야 한다.

둘째, 특기·적성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즉 교과지도보다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적성 계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계도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장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적극적 리더쉽 및 경영 마인드적 이해와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20%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유능한 강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발굴된 강사는 다면평가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우수한 강사는 교육청 단위로 인력풀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다섯째, 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 및 강사 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강사 협의회를 통해 발전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록·관리하여 학생지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행정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해외 연수, 가산점 제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제고해야 한다.

여덟째, 저소득층 및 극빈아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① 추진배경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은 과거에도 운영되었으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적용된 2004년도부터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 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복지 구현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 수요 충족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 학부모가 선호하는 방과후 보육장소 1순위로 학교가 선정됨
 - 2000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결과(60.8%)
 -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학교 47.2%, 학원 15.2%)

② 실 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의 운영형태를 보면, 학교장 직영이 92.5%, 외부기관 위탁운영이 7.5%이며, 시작시간은 오후 12시~1시(66.1%), 종료시간은 오후 4시이후(66.0%) 사이가 가장 많다. 재학아동을 보면, 일반아동 80.0%, 저소득 감면아동 18.3%, 장애아동 0.5%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아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교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정형태별 재학아동을 보면, 맞벌이 가정 아동 71.5%, 한 부모 가정 아동 15.2%,

소년소녀 가장 아동 0.4%이다. 맞벌이를 하는 일반아동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는 전담교사와 보조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교사는 교원 48.6%, 민간인 27.5%, 공무원 7.5%, 준공무원 3.3%, 기타 13.1%로 구성되어 있다. 전담교사의 자격증 소지자격은 초등교사 48.1%, 유치원 2급 정교사 10.3%, 보육교사 2급소지자 8.3%, 기타 유치원 1급정교사, 유치원준교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1,2,3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명 수준이다. 전담 교사 및 보조 교사 채용을 보면, 학교장 직영인 경우 대부분(88.1%) 학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대부분 1년 미만 단위로 채용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은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서 외부인력 지원을 받는데, 16.9%의 학교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24.6%), 지방자치단체(13.9%), 여성가족부(9.2%), 보건복지부(4.6%)등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교육청, 학부모단체, 대학 등과 같은 기타 기관(49.2%)에서도 인력지원을 받고 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보면, 60%의 교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하였고, 33.7%의 교사는 “자체개발한 프로그램과 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3.5%의 교사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61.6%의 학교가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급식제공을 보면, 97.2%의 학교가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는 0.8%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을 보면 평균 1,900만원이다. 학교들이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은 교육청(77.0%), 기초자치단체(12.5%), 교육인적자원부(7.8%), 기타(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학교장 직영인 경우에는 주로 교육청(81.4%)의 지원을 받고, 외부 기관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43.5%)와 보건복지부(30.4%)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427개교 중 196개교(45.9%)에 해당하는 학교가 아동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평균 수업료는 48,000원 정도이다. 수업료를 가장 적게 받는 학교는 한

달에 5천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받는 학교는 한 달에 60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아동 수업료에 큰 차이가 있다. 아동의 수업료(월)는 간식비, 수업료를 합하여 48,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방과후 교실 이후 사교육비 경감 정도를 보면, 학부모의 67.1%가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하고, “아니다”는 8.4%로 응답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 교실 운영 계획은 <표 I-8>과 같다. 2005년부터 해마다 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표 I-8>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위한 방과후 교실 운영 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상학교 수		16	180	500	1,000	1,000
누 계		.	196	696	1,696	2,696
수용인원(명)		320	3,920	19,380	33,920	53,920
소요 예산	신규	20억	144	400	800	800
	계속	-	4.8	58.8	208.8	508.8
	합계	시범운영	148.8	458.8	1,008.8	1,308.8

* 20억 : 학교당 1억, 프로그램 개발비 4억.

③ 문제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과후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80.6%가 자녀를 방과후 교실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방과후 교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부족하다. 방과후 교실 운영의 어려운 점을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미흡(33.8%), 학생의 산만함과 낮은 의욕(20.0%), 보조교사 부족(17.3%), 교구기자재 부족(13.3%), 학교교사의 협조 부족(3.5%), 학교장의 지원 부족(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활용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아동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학생의 산만함과 낮은 의욕을 20%의 교사들이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문제아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전문상담가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72%의 교사들이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하여 방과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필요한 전용 교실 및 시설이 부족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30~38%의 교사가 전용교실, 시설, 기자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인건비 지급 기준도 일정한 근거 없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방학 중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31%가 방학 중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0%는 방학 중 운영을 희망하였다.

일곱째,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의 수가 늘어나면 방과후 교실 사용, 기자재 사용, 교원의 관리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사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④ 개선 방안

방과후 교실이 보다 내실화,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과후 교실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으나, 교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모든 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야 하며, 대상도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인상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점차로 수요자 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 여건, 지역 학부모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모델을 구안·적용해야 한다.

셋째,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교실 지원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

되는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율적인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과후 교실의 경우 운영 형태(학교장 직영, 위탁 운영), 운영 목적,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행·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관리·감독 또한 방과후 교실 소속 기관과 예산지원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받는 등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들이 이중의 관리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갖고 있다. 방과후 아동 지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선정하여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 부서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협력적 운영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 교사들의 경우 가장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강화 ㉡ 방과후 교실 이외의 기존 아동 보육·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활용 ㉢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시·도 교육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에듀넷 등 인터넷상에 탑재하여 자료를 공유 ㉣ 프로그램의 개발, 질 관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지역별로 방과후 교실 교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 등이다.

여섯째, 전담 및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 배치 등 방과후 교실 인력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과후 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과후 교실 1개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씩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의 자격, 역할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사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방과후 교실 1개 학급 기준으로 전담교사와 보조 교사를 1명씩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전담 교사는 1개 학급 당 1명씩 확보하고 보조 교사의 경우 2개 학급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정부 부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사이버 상에 방과후 교실 지도 인력 풀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

력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과후 교실에서 지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탑재한다. 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의 대학생 봉사활동 및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처음 시행되는 방과후 교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아동 전문가, 초등교육전문가,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시설 전문가,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이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방과후 학교

① 추진배경

대통령 지시사항(2004.04.21)에 의해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던 교육 활동에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에 과외나 학원 및 비교육적 공간으로 맴돌던 학생들을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하여 확대·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다 양질의 방과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과후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다.

② 운영체제

방과후 학교의 운영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학교중심 운영체제에서 학부모회, 비영리기관 등이 위탁받아 운영 가능
- 현직교원 중심의 지도 강사체제에서 학원강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다양화
- 본교 재학생 위주에서 타학교 학생이나 성인으로 점진적 확대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계층 학생지원 확대
- 본교 시설 이용 중심에서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다양한 시설 이용 확대
- 운영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③ 연구학교 운영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6개 시·도 교육청당 3개소씩(초·중·고 학교급별로 1개씩) 총 48개교의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한 학교당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학교 중 학교장 중심 운영은 32개교이고, 위탁 운영하는 학교는 16개교(학부모회 13개교, YMCA 3개교)이다. 학생 참여현황은 <표 I-9>와 같다.

<표 I-9>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년	4,889명	2,040명	6,320명
2005년	9,247명	8,999명	9,986명

④ 문제점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앞서 제시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포함한다. 이외에 이러한 3개의 방과후 교육 활동 유형이 새로운 운영체제로 나아가는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운영체제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즉 방과후 학교를 전담할 교원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는 시범학교 운영에서 이러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외부 기관이 위탁을 받아 학생들을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안전사고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대비이다. 또 학교가 방과후에 개방이 될 때, 비영리를 가장한 영리기관이 들어와서 자사

를 홍보할 때의 대처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떤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수요자들에게는 좋지만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치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와 대책을 포함하면서 학교급별, 소재지별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방과후 학교 표준 매뉴얼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개발 중이다.

셋째,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통학의 어려움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이 곤란하다. 학부모들은 등·하교시 통학을 시켜주는 학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은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 학원을 선호하는데, 에어컨을 키는 경우, 학교는 과다한 전기료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는 강사료, 지역여건 등의 이유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은 원어민 영어교육인데 원어민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사들의 업무가 매우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강좌개설, 학생관리, 시설관리, 강사채용 등의 과중한 업무를 교사들이 맡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현직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개선 사항

첫째 방과후 학교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9월에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방과후 학교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둘째, 방과후 학교업무를 담당할 교원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행정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행정직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차를 고려한 방과후 학교운영, 외부 기관의 위탁운영 및 학생관리와 관련된 법적 사항 등과 관련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과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과 같은 여러 부처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교육기자재 및 시설, 지도 강사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아동센터

① 추진 배경

2003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생긴 기존의 지역사회 공부방 등이 지역아동센터로 합법화되어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되었으며 법·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결손아동에 대해 보호, 학습지원,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실태

대상 학생은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학생이다. 2005년 6월 현재 1,176개소에서 30,586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미취학 아동 5.7%, 초등학생 78.6%, 중학생 13.1%, 고등학생이 2.6%로 초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10〉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05년 6월 기준)

개 소	이용학생 현황				
	미취학	초등	중	고등	계
1,176	1,736명 (5.7)	24,048명 (78.6)	4,016명 (13.1)	786명 (2.6)	30,586명 (100.0)

학생들의 가정형편과 경제적 사정은 매우 어려운데, 이경림(2004)에 의하면 77%가량은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수급권자 및 무소득자 자녀들이며, 16%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맞벌이 빈곤가정의 자녀이고, 일반 가정의 자녀가 7%가량이다.

운영기관을 보면, 종교시설 및 단체에서 과반수 가까이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시설형태를 보면, 다수의 시설이 무상임대, 월세, 전세이며 시설운영 여건이 열악하다(자가 35%, 무상임대 28%, 월세 26%, 전세 11%).

〈표 I -11〉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별 현황(2005년 6월 기준)

개 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등)	시민·민간 단체	개인 등
1,176	522개소 (44.4)	259개소 (22.0)	114개소 (9.7)	281개소 (23.9)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센터는 주 6일 운영하고, 학생들은 1일 평균 7.7시간을 이용한다. 모든 기관이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경림, 2004). 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학습지도, 특별활동-독서, 축구, 공예, 미술 등), 문화프로그램(공연관람, 캠프, 체육대회, 견학, 가족소풍 등),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아동센터에 인건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2004년도에는 월 672,0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2,00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학생 급식비로 1인 1식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③ 문제점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대상 학생에 대한 국가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2002년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아동율은 9.8%로 추산하면 1,100,000명이며(18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수는 350,000명이다(18세 미만). 현재의 국가지원(31,000명)은 지역사회 빈곤아동 수에 비할 때 매우 적다.

둘째, 기존 민간의 자율적 운영시설인 공부방을 법령으로 일정한 기준을 통일하여 규정함에 따라 열악한 지역은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정에 따라 2005년 말까지 25평 규모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센터가 약 33%이다. 자격이 미달되는 종사자는 56%를 차지한다.

셋째, 필요한 식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 조사에 의하면 547개소 16,000여명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반 정도의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기존 종사인력 중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69%정도이다. 이것은 아동의 전문적인 지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2005년 6~10월 조사에 의하면, 종사자 월 평균 보수 수준은 48~52만원 정도로 매우 적다(31~70만원 43%, 71~100만원 22%, 무급 18%).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다(2004년 500개소 13,000명, 2005년 800개소 22,000명, 2006년 902개소 24,000명, 2007년 1,500개소 54,000명). 이와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담보하고 전체 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적인 체제가 필요하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여섯째,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2005년 현재 1개소 당 정부 지원은 2,000,000원이다. 2004년도의 672,000원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나, 아동센터가 양질의 교육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생활복지사, 급식인력, 시설운영비, 지도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개선 방안

첫째, 지원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빈곤학생의 수를 생각

할 때, 기존 운영 센터의 수를 더 늘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시설 및 인력자격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센터들이 많으므로 이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해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센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한다. 자격 기준을 맞추는 유예기간의 연장해 주도록 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급식지원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되기 때문에, 국가는 급식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현 종사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서 자체 교육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 연수를 시키거나,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도 등을 적용하여 자격증을 갖추게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별 학습지도, 상담, 보건위생(급식, 건강관리), 문화·오락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서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매우 적은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주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예산을 확보하여 전용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 양질의 교육, 복지 기회 제공을 위해서 1개 센터 당 제공되는 예산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경림(2004)은 센터 당 월 평균 소요예산을 2,000,000원 정도로 예측하였으나,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시설관리비, 기타 경상운영비 등을 더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여러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기자재나 시설, 교육프로그램,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교류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파악하여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상담, 급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일곱째,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신설을 검토한다.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의 경우 정서·신체 발달장애 학생, 학업중단·탈학교 학생, 야간 방임·방치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학생들은 높은 전문성을 지닌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을 지닌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여덟째,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 또는 중앙단위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하고, 교육과 복지의 질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센터의 수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빨리 증가하여 교육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센터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개선 사항을 알려주고, 우수 운영 기관 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DB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방과후 보육시설

① 추진 배경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육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2004. 1), 보육정책의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2004. 6. 12)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3세대 확대 가족이 감소하고,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증가하였다. 확대가족의 감소는 여성의 취업을 보완해 줄 가족차원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이혼과 한 부모가족의 증가로 자녀양육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점차 증가해 왔으며, 결혼과 육아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60.5%, 49.8%로 자녀양육기의 여성의 경제 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 1인 부양에서 2인 부양 규범의 정착으로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 내 남녀의 역할분담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어, 여성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저출산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자녀양육의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이유들은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과 취학후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실태

방과후 보육시설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기준 방과후 전담시설 266개소 7,460명, 방과후 통합시설 1,213개소에서 15,861명 총 1,479개소에서 23,321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시설 설치 기준, 교사자격 및 배치기준이 엄격히 설정되어 있다.

2005년의 방과후 보육시설에 관한 정부지원은 다음과 같다.

- 차등보육료 지원 : 보육단가 월 76,500원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 : 보육단가 월 149,500원(장애영유아의 50%)
- 방과후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시설 : 일반아동 보육교사 인건비의 50% 장애아동 보육교사 인건비의 90%(2005년에는 1,000개소에 인건비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에서는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과 방과후 보육이 주기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숙제지도를 통한 보육학습기능과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004년 6월 통계에 의하면, 보육에서 방과후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 아동수로 볼 때, 3.1%를 차지한다. 방과후 보육시설의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로, 취업모의 자녀가 많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읍·면지역에 많고, 주 5일을 이용하는 아동이 85% 가량 된다. 방과후 보육시설 아동은 월 평균 87,800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보육시설 아동들의 75%는 비용 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감면은 12.5%가, 전액 감면은 12.5%가 혜택을 받고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원장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1이고, 비용 2.9, 주변환경·교육내용·안전관리가 각각 2.8, 영양관리·건강관리 각각 2.7 등이다(여성가족부, 2005).

③ 문제점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여성가족부, 2005),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은 있으나 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초등학교와 학원이고,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학습 보충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 방과후 보육시설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으로 기관장은 인성지도(60.9%)를 들었으나, 학부모들은 인지교육(34.8%), 인성지도(34.8%)를 들어, 기관장과 학부모간에 기대 인식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방과후 보육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보고하면서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육아지원은 방과후 교실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방과후 전담시설 확충 계획은 중단된 상태이다.

④ 개선 방안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더라도 거리나 운영시

간 제약 등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요조사에서도 방과후 보육장소로 보육시설을 선호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일정기간 그대로 유지시키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청소년 공부방

① 추진 배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지역의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② 실태

청소년 공부방은 만 10~14세의 저소득층 초5~중3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495개소 공부방이 있다. 공부방의 수용인원은 25~100석이며, 총 수용 가능 인원은 27,333명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독서실을 개방하며, 학생들은 일일 300~500원을 지불하고 독서실을 이용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50% 매칭펀드의 형식으로 1개소 당 년 5,00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③ 문제점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이 대부분 10년 이상 된 건물이라 학습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공부방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근무조건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아 책임자가 자주 이직을 한다. 또 일부 공부방은 학습공간보다 가정으로부터의 도피장소, 또래집단과의 교제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학습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학생들임에도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없어서 의미있는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개선방안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지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습지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관리교사와 지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 하도록 한다. 청소년 공부방 단위로 또는 지역 공부방 단위로 다양한 건전하고 교육적인 이벤트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공부방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도록 한다.

2)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수행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들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과후 활동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비해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 기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
- 수요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방과후 활동 적용 프로그램 다양화와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질 높은 연수를 시켜야 한다. 자격을 주는 기관과 연수 기관의 평가를 통해 질을 높인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 확보를 위해 적절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도교사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현재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는 4개 부처 6개 사업의 운영을 부처간·사업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 조직과 과정을 체계화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공식적인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각 부처에서는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검토한 후 상호 조정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유형별로 대상과 프로그램을 특성과, 차별화를 통하여 역할분담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시설을 배치하는 일도 필요하며, 이용률이 적은 기관이나 시설은 평가를 통

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고, 그 예산을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투자하도록 한다.

-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신분,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연수, 역할 분담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 유관 조직과 단체 및 시설, 기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방과후 활동 안에서도 구축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방과후 활동 간에도 구축되어야 한다.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 활동 지원협의회(가칭)’를 설치하여 지역의 방과후 활동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일을 수행한다. ‘방과후 활동 지원협의회’에는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여러 부처 관련인사, 교육청 인사, 지자체 인사,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시민 단체 대표, 학교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다.
- 방과후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미흡하다. 방과후 활동은 학생이 이수한 후 생활기록부나 별도의 평가기록부에 누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방과후 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고, 기록결과를 학생의 지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활동의 질을 높이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 방과후 활동의 질에 대한 평가체제가 부족하다. 앞으로 방과후 활동 수행 기관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평가기구나 조직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다.
- 필요한 프로그램, 교수 - 학습 자료, 자원인사, 학생 현황, 교재 및 교구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DB를 구축할 때에는 정부 부처 간에 통일적인 방식으로 하여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예산 확대는 중앙 정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 수행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유관부처들이 함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한다. 방

과후 활동에 대한 민간 기업이나 재단의 기부금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고려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기획예산처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방과후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후 보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부처 간에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방과후 활동의 조직화, 체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통일하는 일이 필요하다.

3. 시사점

첫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과후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가야 한다. 방과후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에 비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기관 및 인사들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본철학의 공유가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개발·편성하여야 한다. 각 부처에서 여러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대상의 차별화와 아울러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도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분보장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의 수준을 담보하는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역할, 신분보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지도교사 및 관련인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연수기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역할에 맞는 적합한 보수로 우수한 인력의 많은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자들을 위한 전문 연수가 병행되어 사전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교사·기관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추진 조직과 과정을 재정비·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도시화 농촌지역

등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와 추진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방과후 활동 주관 부처 및 사업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중복되는 요소도 있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교류·활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관련부처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소외대상 및 중복 대상을 피하고 공식적인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상호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해 방과후 활동 유형별로 대상과 프로그램을 특성화·차별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곱째,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 및 시설,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수합·교류할 수 있는 DB구축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수료한 활동은 학교와 연계되어 학생 지도 및 성취도에 반영 또는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성취한 것에 대해 누가 기록하게 함으로써 방과후 활동의 질을 높이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아홉째,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인 평가기구나 조직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자문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열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카데미 시행기관의 확충, 지도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관련교사 연수, 필요시설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나 재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

II. 주요 외국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례

1. 미국

1) 개요

(1) 방과후 활동 동향과 유형

1980년대 청소년문제 증가, 방치청소년 증가, 기초학력의 감소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청소년범죄가 가장 높은 방과후 시간에 활동 프로그램 집중 제공으로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감소하고 자하는 노력이 미국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통한 교육적 성취 증대와 안전한 장소 제공으로 다양한 발달의 기회 지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II-1〉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유형

구 분	학령기 아동보호	청소년개발	보충심화학습	특기적성개발
목 적	·맞벌이 부모의 자녀보호 ·아동발달 지원	·청소년발달 촉진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학습활동 제공 ·학력성취 증진 ·학력격차 해소	·예술, 체육 등 특정 영역의 기능 개발과 흥미유발로 풍부한 경험 제공
책무성 및 효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접근 ·학부모 참여 증가 ·지역사회학교 발달 ·자격증과 인증제	·범죄, 일탈행동 감소와 안전한 환경 접근 ·결과에 근거한 평가 ·TV시청량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교과영역지도 ·주 정부의 학력성취 평가, 학교성적 및 교육, 보건, 안전관련 법규	·자발적 참여비율 ·특정 활동의 경우 자체적인 평가(과학 박람회, 체육대회 등)
지도자	·아동보육지도자	·교사, 청소년지도자 ·보조교사, 대학생	·교사 ·전문분야별 보조교사	·특정 영역의 전문가
재 원	·연방과 주보조금 ·지역기금 ·학교기부금 ·부모 ·아동발달기금 등	·부모 ·민간기금 ·주 및 연방정부 범죄, 마약, 예방 기금 등	·부모 ·주 및 연방 보조금 ·교육구청 ·영리프로그램의 경우 수업료 등	·부모 ·학교 밖의 경우 부모 ·학교내 방과후 활동은 무료 또는 장학금 지급 등
프로그램 사례	·가정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만남의 장소 ·독서, 음악, 미술 등	·성인교육강좌 ·약물남용상담 ·청소년법률프로그램 ·건강, 사회적기술, 교육, 성격, 지도력 등	·숙제보조, 학습활동 ·과학, 영어, 일기 등 풍부한 학습기회	·컴퓨터, 요리, 스포츠, 미술, 음악, 무용, 워크숍 등

(2) 방과후 활동 추진체계와 효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재원투자와 민간부분의 각종 재원투자가 함께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단일화된 추진체계를 찾기는 어렵다.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재단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활동 지원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는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지역사회단체와 학교의 공동기획에 의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2) 사례

(1) 21st Century Community Centers(21st CCLC)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는 방과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개발활동, 약물 및 폭력예방 프로그램, 기술교육, 미술, 음악,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의 범위를 설정하며, 파트너들 간의 합의를 표현하는 목적 진술을 한다. 이와 함께 활용가능한 전문가,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지역사회의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다.

- 개인교수
- 약물과 폭력예방
- 청소년 중심활동
- 대학입학 준비
- 숙제지도
- 문화예술행사
- 직업준비설계

- 성인교육
- 범집행관련활동
- 탁아프로그램 등

〈표 II-2〉 21st CCLC의 재정지원

시설명	참여인원	제공서비스	재정충당	소요경비
세이트 루이스	70~90명	·개인교수, 미술, 레크리에이션, 성인교실, 약물예방 등	·성인 수업료 ·주택도시개발성 및 학교위원회 보조	\$102,250
머프리스보로	5,400명	·예술, 레크리에이션등	·정규예산과 보조금 ·수업료와 교재비	
뉴욕 The Virtual Y	10,000명 이상	·개인교수, 학대방지교육, 예술, 레크리에이션, 문해력 향상 등	·다양한 방법 이용 비용 절감	\$25,000

(2) 뉴욕지역의 The After-School Corporation(TASC)

TASC는 뉴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2010년까지 전국 공립학교에서 안정적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OSI에서 1달러 투자시 공공부문 및 민간기부금을 3달러를 확보하는 매칭 펀드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립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조직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제안서와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검토 후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하여 예산, 직원연수, 프로그램기획, 성공사례제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150~3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숙제지도, 독해, 수학, 과학, 예술, 스포츠, 지역사회봉사, 현장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TASC은 모든 청소년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내

243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자금 제공,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촉진으로 효과적인 제휴관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교육, 사례공유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음악에서부터 컴퓨터교육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각 프로그램은 공통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집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

TASC의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과제 완성을 돕는 방과후 교육활동(모든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 과정을 보충하도록 설계), 정기적 출석(고등학생은 폭넓은 활동기회 중요시), 연중 일관된 프로그램 진행자(참가자와의 유대감 형성),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1:10으로 유지,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과 사회화의 기회 제공 등이다.

(3) 4-H After-school Program

4-H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청소년사업이며, 최근 도시지역의 청소년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매년 260,000여개 장소에서 4백 20만여명 참여하고 있으며, 4-H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주립대, 지역행정기관, 미국농무성, 전국 4-H연합회, J.C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문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시작되었으며,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방과후 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변화 정보,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정보 등이 있다.

(4) 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BEST)

BEST 프로그램은 L.A지역 교육청, 시청, 교육부, 민간회사등이 파트너쉽을 이뤄 62개 학교에서 10,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내 갱, 범죄, 마약등의 위험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클럽활동, 숙제지

도, 특기, 적성 계발활동을 실시하며 시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초학력의 부족에 대한 대처, 안전공간 제공의 관점, 지역 교육단체와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개발,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재원확보의 방법이 다양하다. 연방정부, 주정부, 농림부, 민간재단, 공공투자형식의 매칭펀드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 활동의 재원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원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과 시설중심의 방과후 아카데미가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이다. 청소년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의 책무로 인식되는 변화가 필요하며, 공공, 민간 등 여러 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다섯째,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2. 영국

1) 개요

학령기 아동을 위한 Out-of-school care(OSC)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 안전하고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이다.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가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

1950년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OSC의 설립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OSC는 주중 학교수업 이전(영양, 식사제공), 학교수업 이후(놀거리와 자극, 발달적 활동이 있는 안전한 환경), 학교 휴업일(야외 견학 프로그램)에 제공 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재원은 아동보호계획, 인력개발, Sure Start Scotland 계획에 의해 The First Minister에서 지역정부로 지원된다.

〈표 II-3〉 OSC 자원 규모

	2003~2004년	2004~2005년	2005~2006년
아동보호계획	19.25 milion	29.15 milion	40.65 milion
인력개발	3.6 milion	6 milion	6 milion
Sure Start Scotland	23.1 milion	35 milion	50 milion

OSC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은 대부분 부모가 일하고 있는 아동들로 5~12세 정도의 연령이다.

OSC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편익제공이다. 방과후 아동보호로 인하여 부모의 취업기회, 근무시간, 여성들의 취업, 결근감소 등으로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사회적 편익제공이다.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도움으로서 부적응 행동 발생 감소와 사회적 태도변화, 긍정적인 학교 환경 등이 이루어 진다.

셋째, 시설과 공간의 제공이다. OSC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정부나 방과후 클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과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표 II-4〉 OSC의 시설과 공간

시설과 공간의 유형	클럽(또는 서비스)의 수
초등학교	307
중등학교	19
지역사회교육	97
기숙사와 같은 학교 시설	43
기타 시 위원회(council) 시설	30
용도에 맞게 신축한 건물	19
시 위원회 소유 건물이나 임대 건물	20
기타	75
계	610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에는 너무 어려 11~14세 아동들은 서비스에서 무시되어 왔다. 부정적 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과 학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임으로 이 시기에 맞춰진 서비스가 개발 진행되어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받는 재원을 통한 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방과후 학습은 아동들의 발달과 학교 학습에 도움이 된다. OSC와 OSHL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들을 동기화 시키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 OSL 분야의 클럽이 숙제지도, 문해력, 수리능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호와 학습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New Opportunity Fund에서는 아동보호와 방과후 학습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OSC와 학교가 함께 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나 결합 방식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사례

(1) After-School club 사례

Hydon center After-School club은 런던의 월셔시에서 운영되며, 방과후 학생 보호와 정서 및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을 3시~6시까지 12세미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10.00의 비용으로 운영한다.

Jackson Lane Art center After-School club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며 학생보호와 미술, 조각, 게임과 문화예술관련 강좌를 11세 초등학생까지 1인당 하루 £9.0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South Marchars 지역의 민간 - 공공 연계 사례

Dumfries and Galloway의 South Marchars 지역은 16세까지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패키지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중심 프로그램은 5~12세의 아동을 위해 민간 조직이 진행한다. 가용자원 활용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을 통한 시골지역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3) Children's Network의 아동참여 사례

OSC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이 미래에 이용하게 될 OSC 서비스의 모습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이 직접 관리하며 다른 클럽을 방문하도록 하여 재무관리기술, 협상기술, 의사결정기술 개발에 도움을 준다.

(4) OSC와 OSHL의 연계 사례

인근지역 초등학교 참가 아동을 위해 교사들이 숙제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학생들끼리 도와가며 숙제를 할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의 숙제를 점검함으로써 자녀의 활동과 접촉할 수 있다.

아동보호센터에 참가하는 아동들을 OSC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들은 OSC와 OSHL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5) OSHL의 사례

Dundee지역의 LIFE프로젝트는 시립도서관과 15개 초등학교에서 숙제지도 클럽과 방과후 클럽을 운영한다. 숙제지도 클럽은 초등학교 5~7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씩 운영된다. 참가자 중 93%의 학생이 자신들의 숙제에 도움을 느끼고 있다. 방과후 클럽은 초등학교 7학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North Lanarkshire지역의 Clyde Valley High School은 중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자아존중감과 동기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시사점

첫째, 영국의 방과후 활동은 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역정부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방과후 활동은 부모가 일하는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아동보호의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셋째, 방과후 클럽은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 지역의 여러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고, 하나의 방과후 클럽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지정 운영한다.

넷째, 방과후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11~14세 정도의 연령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방과후 보호(OSL)와 방과후 학습지원(OSHL)사이의 연계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과후 아카데미와 방과후 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시설에서 담당하는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영국의 방과후 보호를 포함하여 청소년사업은 거의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역정부에서 파견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사업을 담당하며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다양한 시설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다.

3. 독일

1) 개요

독일의 방과후 활동의 대부분은 학교 밖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요일·시간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등에서 호르트(Hort)를 설치하여 보호, 보육을 담당하며 소질 적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재원을 받아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립단체 설립 기관이라도 청소년국에 등록되면 주정부에서 지원하며, 시에 등록된 동호회가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2) 사례

(1) 호르트

취학아동의 교육과 보살핌을 위한 기관으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보조,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후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6~10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해 편부모, 맞벌이, 빈곤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아침 7~8시, 저녁 4~5시까지 운영되며 연령이 혼합된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개인

을 위한 최소공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점심시간, 자유 시간, 학습시간으로 나뉘지며 저학년 아동은 교사에 의한 프로그램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개인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스포츠 등과 흥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집단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한 생일파티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저녁시간에 아이와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이 있다. 수요증가에 따라 학교나 청소년 기관을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학교 호르트는 학교 안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와는 별도의 전문 인력과 독자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호르트 교사와 학교교사가 대화하고 공동으로 축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청소년 기관에 설치된 호르트는 그 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주로 고학년 아동들에게 다양한 자유시간 활동을 제공한다. 재정부담은 아동이 호르트에 머무는 시간과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290마르크까지 다양하며, 식비와 음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호르트에 다니는 비용은 부모의 수입이나 가족규모에 따라서 관계 기관에 보조신청을 할 수 있다.

(2) 전일제 학교

방과후 활동을 하는 전일제 학교가 드물지만, 인격의 발달을 위한 자기활동성을 강조하는 방과후 활동을 계획 제공한다.

〈표 II-5〉 독일의 전일제학교 운영시간과 활동

시 간	활 동
13시 까지	교사의 책임하에 자유놀이
13:00~14:00	점심식사와 식사후의 휴식시간
14:45까지	학교과제 돌봐주기
15:00~16:30	자유시간을 위한 활동들, 학생중심의 동아리활동
16:30~17:00	자유놀이와 정리

특기·적성과 관련된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프로젝트활동은 학교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요일별로 구성된다. 동아리활동은 회원과 전문교사가 모여 기획, 연습, 공연이나 전시 등을 개최하기도 하며, 여가 시간에는 취미활동 및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각 장소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여가활동을 도와준다.

(3) 학교 밖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오후 수업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에 등록된 각종 스포츠 동호회나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시민대학, 음악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여가활동을 한다. 시민대학은 독일 전역에 1,155개 이상 있으며,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성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도 서로 다르다.

3) 시사점

독일의 방과후 활동은 맞벌이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을 통해 보호, 숙제지도, 특기 및 적성계발 프로그램 제공의 형태를 지닌다.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첫째, 청소년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비용절감과 청소년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계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함으로 우리나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년시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을 시에서 지원하며,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차등화하여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설기관과 시에 등록된 동호회에서의 프로그램의 경우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민간조직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호르트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외부의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외부 기관과 연계 또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독일의 호르트나 학교 호르트 및 청소년기관 호르트는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아래 많은 연구와 모델학교 운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동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과후 활동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일본

1) 개요

일본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은 학동보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1950년대 민간 차원에서 학동보육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공동 보육의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보육원을 요구하는 운동을 거쳐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 지도시설 수는 1995년에 8,143개에 달하였는데, 운영주체나 형태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크게 다르며, 그 목적이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학동보육의 대상아동 연령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동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규정은 주로 ① 하교 후 보호자의 취업으로 인하여 보호자, 근친자 혹은 이웃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빈집 가정의 아동, ② 보호자의 장기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자를 대신할 자가 없는 가정의 아동, ③ 보호자의 부재 상태로 있는 기간이 연 150일 이상, 3개월까지 지속되는 아동, ④ 학교 교육법에 규정된 소학교에 재적하는 자, ⑤ 보육 결핍이 인정되는 아동, ⑥ 빈집 가정아동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동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활동은 숙제, 간식, 놀이, 특별행사 등이 있다. 특별행사에는 극 발표회, 바둑, 구기 종목 대회, 전통명절 행사,

생일파티, 소풍, 지역사회 축제 등이다. 학동보육의 특징은 학부모간의 교류와 방과후 활동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하교하면서부터 시작된다.

2) 사례

(1) 동경 코보칸 복지관의 운영 사례

60명을 정원으로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예산은 정부, 부모, 복지관이 각 1/3씩 부담한다. 공립의 경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시설은 복지관 2층에 위치한 300평 가량의 실내체육시설을 겸용하는 강당과 간식과 생일파티, 숙제 등을 하는 30평 가량의 집회실을 이용하고, 인력은 담당 직원 외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부모가 귀가할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며, 숙제를 비롯한 학습지도, 놀이지도,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을 한다. 코보칸 복지관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있으나 비인간화 되어가는 일본의 현실에 맞추어 인간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 형성 등에 주력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동들이 방과후 교실에 다닌 후로 교우관계와 발표력이 좋아지고, 학교와 가정생활에서도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발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곳에 보내려는 부모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 가정의 자녀들도 성격형성에 좋다하여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젊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숙제 및 놀이지도의 부담을 덜려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

(2) 중·고등학교에서의 부(部)활동

일본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활동은 클럽활동과 부(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클럽활동은 지도교사가 주관하면서 정규 시간에 주당 1시간 배당된 특활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나 그 시간이 연장되어 방과후 활동으로 연결되기

도 한다. 부활동이란 음악, 축구, 야구 등의 과외활동으로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는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추천입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 방과후 부활동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클럽활동과 부활동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학교실정에 따라 부활동에 참가하여 클럽활동을 이수한 것과 같은 성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활동 참가 실적을 클럽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럽활동의 종류는 대개 체육클럽과 문화 클럽 및 봉사활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육클럽은 주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유도, 궁도, 소프트테니스, 수영, 소프트볼, 육상, 신 체조 등이 이루어진다. 문화클럽으로는 수학, 과학, 미술, 가정, 음악, 무용, 다도, 서예, 서도, 요리, 꽃꽂이, 컴퓨터, 영어회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의 학교 현실과 유사하다.

즉, 공립학교의 경우 문부성의 방침에 따라 클럽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서 부활동 즉, 교과외 활동만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추천입학제에서 부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부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립(공립)고등학교에서는 40~50%의 학생이 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100% 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공립학교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3) 시사점

일본의 방과후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학동보육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학동보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부모들간의 교류와 학부모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학동보육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들 간의 정보교류와 학부모회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방과후 활동

의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학동보육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다.

셋째, 학동보육 사업의 참여대상이 초등학교 1~3학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은 현상으로 보호와 보육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교적 나이가 든 고학년 아동들은 보육시설을 떠나서 활동적이며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추진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고 연령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프랑스

1) 개요

프랑스의 방과후 청소년활동 정책의 주요 대상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만 3세 이상),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이들의 방과후 시간 활용에 관해 교육부, 청소년부,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학교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등교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수요일에 휴식, 학교공부 보충, 각종 취미활동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리듬은 부모의 직장 생활 리듬과 부합되지 않아 1990년대 후반에 학교 수업시간 조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부모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고 수요일에는 출근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보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면 토요일 대신 수요일에 수업을 받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별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간 수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프랑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수업시간 조정에 관한 토론을 의무화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업시간 조정 사업은 방과후 학습활동과의 조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위 준교육사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아침 공부방”과 “방과후 학습지원”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준교육사업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중심의 독서교실, 과학교실 등도 준교육사업에 포함된다. 과외와 같이 상업화된 준교육활동도 있다.

공공 서비스로서 준교육사업은 본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취약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역차별 정책인 “우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준교육사업은 교육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한다. 1999년에 준교육사업이 우선교육지구 이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한 지역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 간에 상호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 즉 학교 수업시간, 스쿨버스 운영시간,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준교육활동 시간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청소년의 참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지역별(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로 관계기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국가와 협약을 통해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교육협약”제도가 생겨났다.

2) 추진체계

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개 자원봉사단체나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정책의 계획, 재원확보 및

지원, 평가 등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그 산하의 도시나 마을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 차원의 위원회도 있다. 각각의 역할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프랑스 방과후 활동추진체계

기 관	역 할
전국학습지원위원회	정책구상, 방향설정, 발전방안 마련, 연구
기초자치단체 학습지원 위원회	사업공모, 정보제공, 사업검토, 재정지원, 실적 파악 및 평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훈련 활동 제언
지역위원회	지역 진단, 우선순위 및 방향 설정,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운영, 사업실적 파악 및 평가, 사업 추진 및 조정, 지역 수준의 교육-훈련 제언
학습지원 참여 단체	학교, 공공기관, 가정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 참여자 간의 조정, 지역 자원망 운영, 교육-훈련의 필요 분석
동반자	교육적 전략 수립, 주변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어린 이의 개방적 태도 유도, 지식과 경험 연결시키기, 어린 이의 진보상태 평가

* 자료 : 프랑스 교육부(연도미상), Guide de l'accompagnement a la scolarite.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동반자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청소년 일자리 취업자들이 많이 활동한다. “청소년 일자리”란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직업세계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새로운 공공 서비스 운영에 청년층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 서비스 혁신과 청년층 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 인력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턴제가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층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방과후 학습지원의 재원은 주로 자치단체가 지역교육협약을 통해 확보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의 시설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학·내외 각종 교육활동(준교육활동)에 관한 정책을 관장한다. 지역교육협약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2001년 현재 초·중등학교 대상의 준교육사업이 전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8%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방과후 학습지원이나 아침공부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사례

(1) 아침 공부방

아침 공부방은 보통 아침 7시 30분에서 등교시간까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맡아서 학교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끄는 일을 한다. 어린이들은 책 읽기, 장난감 놀이, 지도자가 진행하는 활동 참여, 학교 공부 복습, 교과서 읽기 등에 참여하는데 이 시간에 어린이 보호를 책임지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이다. 비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주로 출근 시간 전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이용한다.

부르고뉴 지방의 Beaune시가 제공하는 아침 공부방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월, 화, 목, 금 4일간 운영하며, 비용은 주당 32프랑(약 4,000원)을 매주 초에 치른다. 공휴일 등으로 4일 미만이 될 경우 하루에 8프랑(약 1,000원)으로 계산한다. 단 하루만 이용시 15프랑(약 2,000원)의 비용이 든다.

(2) 방과후 공부방

방과후 공부방은 학교가 아니라 주로 지역사회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어린이들에게는 숙제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학습태도와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가정이 이를 보장해 주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학습지원의 목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학습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일, 복습을 도와주는 일,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일, 그 밖에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Morbihan이란 도시에서는 AFEV이란 대학생 단체가 “좋은 방향으로 밀기(Un Bon Coup de Pou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월에서 5월까지 무료로 대학생 한명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한명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지도를 맡는다. 대학생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며 이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스스로 조직한다. 한해 약 1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4) 시사점

아침 공부방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어린이들에게는 학교 공부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부모들에게는 출근 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취학전 교육 단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실시한다면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공부방 혹은 학습지원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생활권 청소년 수련활동에 추가된 정책이다. 기존의 청소년 수련활동은 등교하지 않는 수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주로 열렸다. 방과후 학습지원 이후 평일 방과후 시간에 관해서도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학습활동 위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자인 어린이들은 주로 각종 학원을 다니면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는데 그 비용도 적지 않고 보습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학습 부담이 높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사업추진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교육협약을 통해 지역 내의 관계기관이 청소년의 시간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정책 사업의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정책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 자원봉사자, 각 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는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다. 대학생과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각종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지역교육협약 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한 계획을 제안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교육협약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를 상세히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교육환경 분석, 기존 사업분석, 활용가능한 자원 등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6. 북유럽(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1) 핀란드

(1) 개요

핀란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모 모두 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여성의 1년의 유급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기부터 대체로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Day Care)에 낮시간 동안 맡겨지게 된다. 의무교육은 7살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최근에 취학 연령 전의 아동에게 보육시설과 학교의 중간과정인 유아학교(pre-school) 과정이 새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육시설과 유아학교를 거친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교육

의무교육은 전체 9년으로 현재 성인인구의 99.7%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 의무교육과정 기간에는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교 급식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의무교육이 끝난 시기에도 여러 학자금제도와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누구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거지도 제공받는다.

교육부 소속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청소년의 삶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 내용은 실업율과 비실업율, 교육과 훈련, 주택, 이민, 결혼과 가정, 수입과 부채, 건강, 질병의 종류와 사망원인, 범죄, 사회적 소외 등이다.

(3) 방과후 활동

핀란드의 학교들은 1시부터 3시 사이에 수업을 마치게 된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 양쪽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핵가족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활동이 필수적이다. 방과후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오후에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누리게 하는데 있다. 방과후 활동은 교육부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방과후 활동의 목적이다. 지역정부는 방과후 활동을 지역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방과후 활동은 지역정부나 협회, 교회 또는 다른 청소년단체에 의해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건강부와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활동은 민주주의 교육과,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개발, 약물과 음주 예방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의 청소년국은 12~15세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클럽활동을 제

외하고는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국가적인 청소년 문화 이벤트도 기획한다.

2) 노르웨이

(1) 개요

노르웨이 전체인구의 감소와 함께 가족구조는 지난 몇 십 년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동거부부의 증가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수의 증가와 함께 이혼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하여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조직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다.

(2) 청소년관련 정책

중앙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정책, 법안, 재정, 연구, 인적자원의 개발, 정보와 조언의 제공 책임이 있다. 교육연구부가 주로 학교교육을 담당한다면 아동가족부는 아동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 예산은 주로 가족의 복리 후생 지원비로 쓰이고 데이케어(day care)시설과 복지 서비스에 쓰인다. 아동가족부는 영유아 아동을 위한 데이케어와 가족보호센터, 위기센터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족아동부 내에 아동과 청소년 정책부가 있으며 여기서는 일반적인 아동과 청소년 정책, 복지, 입양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또 청소년단체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담당하며 국가간 청소년 교류와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및 소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사업도 주관하고 있다.

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모두가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관할한다. 주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파견된 중앙정부의 대표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해당 주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지역에 관한

지식과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할 책임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곳이다.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업무에 할당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 중에 아동과 청소년 교육부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대표단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행하는 것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라 할 수 있다.

(3)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① SFO

SFO라는 방과후 활동 센터들은 학교 안이나 학교 가까이에 위치함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은 오전 7시 30분에 개방하여 수업시작 전까지,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4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한달에 1인당 100유로 정도의 참가비를 지불한다. 부모들은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프로그램 면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소리가 있다.

② 숙제돕기 프로그램

적십자의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이 숙제에 관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지역과 사회에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자원활동 그룹, 학부모회, 청소년들과 협조하고 있다.

3) 스웨덴

(1) 개요

스웨덴 청소년정책은 13~25세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공평한 권리를 가지며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서나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he power to decide the right to welfare (결정할 힘과 복지의 권리) 라는 법안에서 제시하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사회 발전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며 개인의 삶과 지역의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누려야 하며, 범죄를 비롯한 모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국립청소년문제위원회(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는 실제 청소년의 삶의 조건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 정부와 다른 청소년 관련기관들 간의 협조와 지원을 도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소외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좋은 생활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방향으로 한다.

(2) 방과후 활동

유아학교나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기와 혹은 방학 기간동안 연중 내내 다양한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방과후 활동이다. 방과후 활동에는 방과후 학교(after school)와 가족보육(family nurseries)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방과후 학교는 10~12세의 아동이, 가족보육 프로그램은 6~9세의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시설 안에 함께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의 보육을 위해 방과후 센터(after school centres/fritidshem), 가족센

터(family day nurseries/familgedaghem), 방과후 활동(after school activities/oppn fritidsverksamhet) 등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9세는 방과후 센터(after school centres/fritidshem)에 10~12세는 방과후 활동(after school activities/oppn fritidsverksamhet)에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아동교육은 1998년 이래로 초등학교 저학년 국가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학교시설안에 방과후 센터나 방과후 활동 시설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방과후 센터는 6,0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책임은 스웨덴 국립교육원에 있다.

(3) 레저타임센터

스웨덴의 전형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은 레저타임센터이다.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고 아침식사를 포함하여 자유활동을 하다가 수업시간에 맞추어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레저센터가 학교안에 위치한다. 수업이 끝나고 아동들은 부모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레저센터에 남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과 발달을 중심으로 하여, 놀이가 주제 중심이고 아동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관련성을 포함한다. 또 프로그램 내용에 유아, 아동시기의 보육교육학적 접근의 중요성과 집단 속에서의 발달을 담고 있다.

최근 스웨덴 레벨버가학교는 유아학교, 의무학교, 레저타임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방과후 혼합연령반으로 방과후 반을 다시 편성하여, 학생회 활동, 야외활동, 캠프, 독서활동, 취미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번 구성된 집단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며 교사들이 그룹을 지도하기도 한다.

4) 시사점

이상의 북유럽 3개국 방과후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며, 충분한 청소년시설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과 사회국가적 인식은 방과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된다.

둘째, 3개국의 방과후 정책은 독립되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처럼 방과후 활동에 대한 강조점을 두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한국처럼 입시와 학원에 시달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후에는 당연히 자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 활동하는 것은 굳이 방과후 정책이라 명시하지 않아도 청소년정책 가운데 포함되어진 것이고, 이는 청소년 활동정책이 곧 청소년 방과후 정책임을 암시한다. 물론 방과후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3개국 모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해당되는 보육시설과 정책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방과후 관련 정책도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로부터 도출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의 연계 강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과후 활동에 대한 관심은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대처와 방과후 안전한 공간의 제공이라는 관심에서 활성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방과후 클럽은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방과후 활동도 청소년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유는 방과후 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도 방과후 활동 관련부처간,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여 서로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뉴욕지역의 TASC나 LA지역의 BEST 등의 프로그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정부 및 시청, 교육청 등과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영리 재단, 지역사회조직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조직의 연계협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교육분야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방과후 활동에 필요하나 재원확보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인적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중심으로 전개되는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상호연계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나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청과 교육청, 시·군·구청과 교육청간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선 학교와 청소년시설간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역할의 분담을 통하여 양측의 전문성을 상호간에 활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원확보 방법의 다양화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방과후 활동에 투자되는 재원의 출처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많은 민간재단에서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등과 연계하여 방과후 활동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무상지원이 아닌 경우 참가비를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대한 사정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부모의 수입에 따라 다양하게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3) 지역단위협의체 구성

방과후 활동의 운영은 학교나 지역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교 및 교사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청소년활동,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의 책무로 인식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사회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LA지역의 BEST나 뉴욕지역의 TASC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부모 참여 유도 및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적극적 활용

일본의 경우 방과후 학동보육에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다. 학동보육에 참여하는 부모들간의 교류와 학부모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학동보육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들 간의 정보교류와 학부모회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방과후 활동의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동 보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자, 각 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는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다. 대학생과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각종 매뉴얼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 지원체제 및 전문기관 설립·운영

사회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에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1st Community Learning Center, 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 등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은 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Child Act에 근거하여 사업을 지역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과후 활동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방과후 활동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의 호르트나 학교 호르트 및 청소년기관 호르트는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다. 이상적인 모델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모델학교가 운영되고, 그를 통해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동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과후 활동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6)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영국의 방과후 활동은 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역정부(local authority)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Child Act에 근거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된다. 물론 민간부문(voluntary and private sector)에서 1970년대에 선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7) 연령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제공

영국의 경우 방과후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Childcare) 중심으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11~14세 정도의 연령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11~14세 정도의 청소년들은 아동보호의 컨셉으로 보호하기에는 연령이 너무 높고, 고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령대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의 감소나 부정적 행동에 대한 또래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방과후 보호의 컨셉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SC의 적용대상이 초등학생이고, OSC클럽의 사업의 일환으로 16세까지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방과후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대체로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은 지역의 청소년센터나 청소년클럽에서의 활동지대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령계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생 이상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찾아가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보급

영국의 방과후 보호를 포함하여 청소년사업은 거의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센터나 청소년클럽 등에는 지방정부에서 파견하는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가 배치되어 청소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클럽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등에 입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클럽이 청소년센터 등 특정 청소년전용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가까운 마을회관 등에 지역정부에서 파견한 청소년지도자가 근무하면서 청소년클럽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청소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생이고, 차량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마을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로 청소년지도자를 파견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교육협약을 통해 지역 내의 관계기관이 청소년의 시간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정책 사업의 시간대를 조정, 정책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9)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습지원도 중요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처럼 학습활동 위주로 진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학습부담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수업이 끝난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소년들에게 학교수업의 연장과 같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학습활동은 학업성취의 기초가 되는 학습에의 흥미 및 동기유발과 문제해결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험기와 자유시간 활용법, 대인관계기술 등을 통해 자신 스스로 자신을 알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의의

| 기본개념 |

-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전개
-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 국가의 전국단위 정책 사업과제

| 정책적 의의와 효과 |

-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요구에 적합한 활동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참여 확대
- 청소년활동자원을 기반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제 확보
- 국민적 신뢰와 지지 확산으로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기 마련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정책 비전 및 목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 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활동·복지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교육 문화적 격차 보완, 학습능력 향상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등
 - 유발 기대효과 :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범죄·비행 노출 예방
-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방향

-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구축
 - 청소년 지원의 책임을 학교·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일정부분 전환
 -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가정·학교와 지역의 상호 신뢰 및 연계 복원 계기
 -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신뢰감 형성
 - 학교교육 보완 기능으로서, 공교육과 방과후 아카데미와의 상호연계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필수시설로서의 재구조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상시적인 운영 지원 및 점검·보완
-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
 - 미래지향적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 개설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공통과정	숙제지도 및 자기주도학습, 보충심화학습(주요 과목)
전문선택과정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교육
특별지원과정	부모 간담회, 가족 캠프·부모교육 등
생 활 지 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 등

- ※ ① 참여시간부터 가정 귀가시까지 철저한 생활관리 및 부모와의 상시 연계
 ② 청소년의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병원 등과의 연계 협력
 ③ 참여 청소년 부모 대상 “좋은 부모되기 프로젝트” 병행 운영
 - 좋은 가족 만들기 가족캠프 운영(년 1회, 선택적 시행) 등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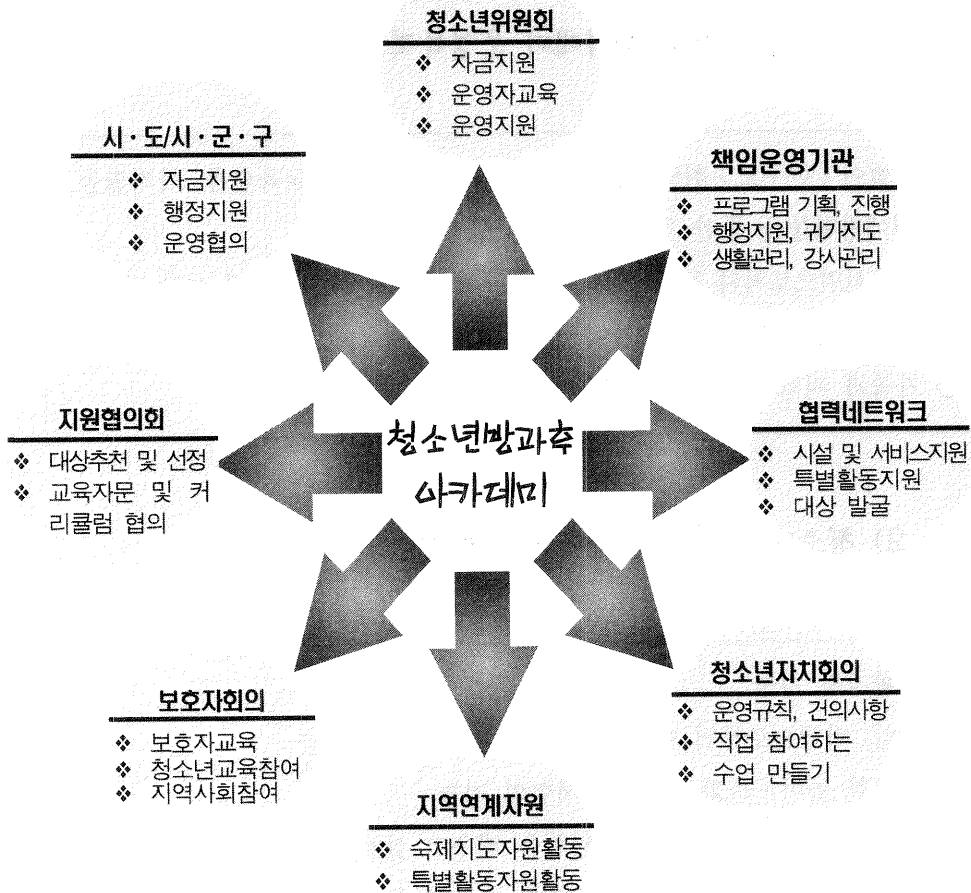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목적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복지활동, 비행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푸른 성장발달 도모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 공간 제공
- 가족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용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능

- 생활지도 기능
- 방입, 비행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 건전한 놀이·문화 지도 및 체험의 기능
-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능
- 보호자와 청소년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커뮤니티를 확산시키는 기능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체제도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방향

- 사업 고유 목적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명확한 목표 의식 설정
 -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진행
 -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 평가 기준 마련

○ 생활관리 철저 및 사후 관리계획

- 개인별 생활기록카드, 교육일지 등의 작성을 통해 철저한 하루생활 관리
- 정기적인 가정통신문과 생활기록카드를 가정에 발송함으로써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피드백
- 자원 활동가 및 지도교사들의 평가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
- 출결 상황을 전화 및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관리 운영
-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지원
-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정기적인 전화 면담 실시
- 청소년 자신이 체크해 보는 자기관리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 대안교육 장으로의 프로그램 개발

- 정기적으로 자원 활동가 및 지도교사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상황과 참여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수정·보완 운영
-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안전한 등·하교 방안 마련

- 책임운영기관 인근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
- 귀가 시 보호자 및 친인척 등을 동반한 귀가 지도
- 셔틀버스를 이용한 등·하교 지도
- 매니저 및 자원 활동가들의 직접 귀가 지도

○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집중도 배가를 위한 제반 여건 수준 유지

-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제공 철저 유지
-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학습용 컴퓨터, TV, 개인사물함, 작은 도서관 등 학습 환경 조성
-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 교재·교구 제공

- 투명한 행정 및 재정운영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수행에 맞는 행정력 보유자 배치
 - 예산지침에 맞춘 투명하고 성실한 재정집행자로서의 의무 성실 수행
- 체계적·종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과후 아카데미 모델 개발
 - 다양한 학습방법 및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 사업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사업운영 방식 개선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접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모형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방과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 및 결합을 통해 지역 휴먼서비스 구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유지체계 구축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절차

개 설	▶	운 영	구 분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	결 과 보 고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수련시설 중심(A형)	A-1	A-2	A-3	A-4	A-5	A-6		
			지역사회 연계(B형)	B-1	B-2	B-3	B-4	B-5	B-6		

- ① 일반형 :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
- ② 지원형 : 기초생활 수급 대상,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살핌, 비행 노출 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한 모형
- ③ 혼합형 :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 청소년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과정
- ④ 수련시설 중심(A형) : 수련시설 내에서 대부분의 과정 운영하는 형태

- ⑤ 지역사회 연계(B형) : 수련시설은 50% 이내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 활용은 인근 공공시설 또는 연계협력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 (예 : 공공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등)

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내용

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방식

- 부모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한 선발
 - 일반형의 경우 신청·선발(공개) / 지원형의 경우 초청·선발(비공개)
 - 아카데미 당 60명, 40명, 30명(일반형, 혼합형) 단위 운영
 - ※ 아카데미는 1개반을 20명단위로 운영하되, 일반형 및 혼합형 아카데미(30명)의 경우는 1개반으로 편성(단, 일반형은 질적 확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15명단위 2개반 편성도 가능)
- 운영일수 : 주6일(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체험학습 권장)
 - 평일은 15시부터 21시 내에서
 - 학교등교 토요일은 12시부터 19시 내에서
 - 휴무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 내에서 각각 5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 1시간 : 초등학교 40 ~ 50분, 중학교 50 ~ 60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종합적인 청소년 생활지원 및 관리
 - 과정시간 내 생활상의 요구지원 및 생활기록(전반적 사항)
 - 생활기록에 대하여 부모와 수시협의 및 부모와의 만남의 날 운영

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과정운영 표준(안)

-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 과정은 1일 5시간, 1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1주 기준 : 기본공통과정 10시간, 전문선택과정 14시간, 급식 6시간
 - ※ 전문선택과정은 일반전문선택(10시간)과 체험전문선택(4시간)으로 구분
 - ※ 체험전문선택시간은 시험기간 등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변경활용 가능

○ 세부내용

구분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 과정	생활지원
		영역	예시(안)		
초등 학교	숙제·자기주도 학습	문화·예술	서예, 피아노 등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메일링서비스)
		스 포 츠	수영, 인라인 등		
	보충심화학습	과학·탐구	로봇, 컴퓨터 등		
		세계·시민	언어, 문화이해 등		
		지역·사회	리더십, 웅변 등		
중 학 교	"	문화·예술	밴드, 댄스 등	"	"
		스 포 츠	수영, 암벽등반 등		
		과학·탐구	컴퓨터, 환경 등		
		세계·시민	언어, 여행 등		
		지역·사회	리더십, 사회봉사 등		

※ 청소년·부모 요구 시, 자기주도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학습 지원

③ 필요인력 및 역할

필요인력	역할
책임운영기관대표	• 사업총괄
책임운영기관팀장	• 사업·조직관리, 업무협의 조정
PM (Project Manager)	• 운영총괄, 행정업무, 일정관리 • 강사관리, 자원 활동가 관리
SM (Schedule Manager)	• 담임, 생활상담, 생활지도 • 보호자상담, 개별지도 • 숙제지도 또는 자기주도 학습 지도 1일 1시간
강사	• 전문프로그램 지도 • 개별 기본학습 능력평가, 교육내용 협의
자원 활동가	• 사업지원, 생활지도, 학습지도, 보조교사

※ 상기 인력별 역할 외 별도업무분장은 책임운영기관대표 재량으로 분장할 수 있음.

④ PM/SM 인력배치기준

구 분	기준 및 자격
PM (Project Manager)	• 1명 전담배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및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함, 기존인력 중복업무부여 주의사항
SM (Schedule Manager)	• 1개반 1명(최대 3개반 3명)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와 연관이 있는 관련분야 전공자(전문대졸 이상)로, 청소년지도에 부합하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자 ※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함, 기존인력 중복업무부여 주의사항

※ PM/SM 채용 시 고용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PM/SM 현황) 작성 비치

⑤ 강사인력 확보

- 기본공통과정 중 주요 심화학습은 관련 교과목 전공위주의 대학원생, 퇴직교사, 주부 등 활용

※ 일반형은 기본공통과정의 학습을 외부 전문 우수 강사진을 확보하여 질적 수준 제고

○ 전문선택과정은 해당 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

구 분	과 정	인력확보방안
일반강사 (1일 1시간)	기본공통과정 (주요심화학습)	- 지역 대학원생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인력풀 구성·운영
전문강사 (1일 2시간)	전문선택과정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 기본공통과정 중 숙제지도·자기주도학습은 SM에 의한 강의 담당

※ 강사채용 시 고용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⑥ 지원협의회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

- 책임운영기관장, 지자체 청소년업무 관계자, 보건소장, 사회복지관련 기관장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지원협의회 주요기능

- 지역사회 차원의 연계협력지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 사업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 의료 서비스 지원

종합병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산부인과, 치과, 안과, 내과, 정신과 등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장 도모

○ 법률 서비스 지원

청소년을 위한 변호, 기타 법률적 문제 개입,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및 가족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 옹호

○ 교육 서비스 지원

동아리, 동우회, 시민·사회단체, 교원노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특별활동(현장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캠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및 다양한 지역적 대안교육 제공

○ 자원 서비스 제공

자원 활동가 지원, 물품 후원, 문화프로그램(영화, 연극, 스포츠, 음악회, 미술전 등) 초대권 후원, 간식후원, 대상 청소년 발굴 등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심신의 안정감 회복 도모

3.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1) 수련시설 종류별 운영현황

구 분	빈 도	비 율
청소년수련관	72개소	72
청소년수련원	2개소	2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24
기 타	2개소	2
합 계	98개소	100.0

2) 운영주체별 운영현황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기 타	합 계
공공 직영	17	0	3	0	20
공공 위탁	5	3	1	0	9
민간 직영	1	0	0	0	1
민간 위탁	47	0	21	0	68
기 타	0	0	0	2	2
합 계	70	3	25	2	100

3)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구 분	빈도	비율
일반형	3	3
지원형	93	93
혼합형	4	4
합 계	98	100

구 분	초 등				중 등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합계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합계
수련 시설 중심	2	75	2	79	0	30	2	32
지역 사회 연계	0	10	0	10	0	5	0	5
합계	2	85	2	89	0	35	2	37

4) 계획 인원 참가 청소년현황

전 체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계획 인원	비율	계획 인원	비율	계획 인원	비율	계획 인원	비율
4,220	100%	140	3.3%	3,880	91.9%	200	4.8%

Ⅳ.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발전 방향

1. 사업의 성격과 취지의 명료화로 타당성 강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명확한 개념, 성격, 정책 추진방향과 지침의 개발을 통해 사업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학교나 입시(보습) 학원과는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추진 논리, 운영 모형,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방식의 개발 추진
- 다른 부처의 유사 사업(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운영 전략과 함께 역할 분담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개발
- 학교수업의 연장이나 보육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자원을 활용한 종합 서비스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을 초점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 참고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체험활동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교과학습 부문 운영은 학교연계 또는 자체 역량의 확보에 노력하되, 수익자 부담시(일반형) 교과관련 학습부문은 학원수준의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거나(강사비 현실화) 교육 전문기관 연계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사용을 검토

2. 운영형태 및 여건에 따른 적용방안 개발

- 지원형
 - 문화, 학습, 자기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참가 대상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함
 - 저소득층으로의 낙인 문제 및 복지 분야의 사업과 차별화 방안 마련
- 일반형
 - 수익자부담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요구는 일반 입시(보습), 예체능 학원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임
 -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관련 체험학습으로 학력신장 기여(체험활동 자원 활용, 학교·학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혼합형

-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여건이 다른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음
- 부모들의 거부감 및 무료지원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고려

⇒ 운영 모형은 최소 기준을 토대로 지역여건과 요구, 시설의 운영 기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개발하며, 시설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혼합형 모형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3. 운영조직의 체계화와 인력의 전문화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수련시설 전체 사업체계에 포함되면서 담당 조직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실무책임자의 관리하에 인력과 사업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조직체계 개발 필요
-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는 PM은 시설 직원의 업무 전환보다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 추진 필요(내부 직원의 경우 신분과 예산 회계상 문제 발생 가능)
- 자원봉사자 급여 기준의 SM의 기능,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리와 현실화 필요와 함께 역할에 따른 명칭의 조정 검토
-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 및 강사 인력의 경우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적 운영 기준 강화 필요
- 사업책임자, PM 및 SM, 기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사업에 대한 취지 이해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부여

4. 프로그램 운영의 탄력화와 현실화

- 시설 및 이용자 특성상, 교과지식 중심의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학습분야는 학습동기개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특성화 검토
- 운영시간은 생활양식과 연령특성, 신체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편성내용은 참가자 요구와 시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개발과 운영

- 주말 프로그램은 야외 현장 체험활동으로 특화하여 지역연계 사업화
- 지역 내 시설/기관 연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제약 극복 필요

5. 사업 운영 기능의 강화를 위한 대책 개발

- 참가자 개인을 위한 지원과 관리 부문
 - 개인별 상담, 인성지도 등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형의 경우 강화)
 - 급식비의 현실화, 지역 여건 반영 및 표준식단 개발 등 관리 대책 필요
 -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혜택 서비스 지원 대책 필요
 - 지역 간 구분 없이 귀가 관리를 위한 교통편 확보와 지원 대책 개발 필요
- 홍보와 지역협력 부문의 강화
 - 정책당국 차원의 홍보전략 개발, 지원과 지역사회 이미지 확보를 위한 CI개발, 개별 시설별 홍보전략 및 홍보매체 개발, 홍보실행을 위한 직접적인 자문과 지원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체제 구축 지원
 - 지역기관 협력을 위한 행정기관의 협조와 구체적인 기관 섭외 지원
- 운영 시설지원과 교류 부문
 - 시설 운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장 컨설팅 기능 강화
 - 유형별, 지역별 운영시설간의 상호방문, 워크숍, 평가회 운영 지원
- 사업관리 부문
 - 사업 중심으로 예산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탄력성 부여
 - 사업실적 관리의 일원화와 정보의 통합관리 및 교류 지원
 - 컨설팅의 상시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현장 지원 강화

6. 체계적인 운영지원조직체 구성

- 아카데미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단을 구성 지원단장은 소관부서 국장급으로 하고, 분과는 행정지원분과, 개발·평가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

- 행정지원분과는 행정 간섭 배제, 지원·조정 역할
- 개발·평가분과는 사업모형개발 및 평가업무
- 운영지원분과는 현황유지 및 활동 콘텐츠 자문

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향후 아카데미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과 전체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확실하게 지도·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8.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의 중복 등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이 예상됨. 따라서 지역 내 협의기구 및 지원기구의 상설화를 통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논의기구를 중앙단위와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9. 시설 실무담당자 지정

- 시설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설은 아카데미 실무책임자를 팀장급 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행정 협의 창구의 일원화

10. 표준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 현재 20여 가지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발생, 또한 예산 집행절차도 각 시설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됨. 이러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서류만을 구비토록하며,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표준운영지침이 필요함. 또한 표준운영 매뉴얼 제작·보급이 시급히 요청됨.

[부록]

'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현황

구 분	시범운영 시설명	전화번호	형태			참가자		
			일반	지원	혼합	계	초등	중등
서울	문래 청소년수련관	02-2675-7776	○			40	40	
"	중랑 청소년수련관	02-490-0216		○		60	60	
"	금천 청소년수련관	02-803-1318		○		60		60
"	강북 청소년수련관	02-900-6650~1		○		60	40	20
"	마천 청소년수련관(송파)	02-443-0100		○		40	20	20
"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02-334-0080			○	60		일반30 지원30
"	구로 청소년수련관	02-828-1318		○		40	40	
"	노원 청소년수련관	02-3391-4141(191)		○		40	40	
"	중구 청소년수련관	02-2250-0521		○		60	20	40
"	창동 청소년수련관	02-951-5301	○			60	60	
"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02-3295-1478		○		40	40	
"	수서 청소년수련관	02-2226-6229	○			40	40	
"	은평 청소년수련관	02-383-9966(153)		○		40	40	
"	성북 청소년수련관	02-3292-1318(324)		○		60	60	
부산	금곡 청소년수련관(북구)	051-361-6685		○		40	40	
"	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051-316-2214		○		40		40
"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051-333-0729		○		40	40	
"	금정 청소년수련관	051-581-2070~2		○		40	20	20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053-761-9400		○		40	40	
"	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053-215-1318		○		30	30	
"	대구시 청소년수련원	053-656-6655		○		30	30	
"	서구 청소년수련관	053-573-1004		○		40	40	
"	북구청 소년수련관	053-384-1318		○		40	40	
"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053-639-7105		○		40	40	
소개	24개소		3	20	1	1,080	820	260

구 분	시범운영 시설명	전 화 번 호	형 태			참 가 자		
			일 반	지 원	혼 합	계	초 등	중 등
인천	동구 청소년수련관	032-777-7942		○		40	40	
"	서구 청소년수련관	032-573-4273		○		40	40	
"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032-440-6828		○		40	25	15
"	인천시 청소년회관	032-887-5270		○		40	40	
"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032-546-7646		○		40	40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062-268-2321		○		40	40	
"	남구 청소년수련관	062-650-1043		○		60	20	40
"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062-373-0943		○		40	40	
"	동구 청소년수련원	062-225-7224		○		40		40
"	서구 청소년수련원	062-654-4316		○		40	40	
"	광산구 청소년수련원	062-973-9550		○		40	20	20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042-626-0225			○	60	20	40
"	평송 청소년수련관(서구)	042-480-1612		○		40	40	
"	대흥 청소년문화의 집(중구)	042-224-1318		○		40	40	
"	장대 청소년문화의 집(유성구)	042-825-1321		○		30	30	
"	살레시오 청소년수련관(동구)	042-584-0654		○		40	20	20
울산	울산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052-212-1140		○		40	40	
"	공업탑 청소년문화의 집(남구)	052-273-3011		○		60	40	20
"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동구)	052-234-5833		○		40	20	20
소계	19개			18	1	810	595	215

구 분	시범운영 시설명	전 화 번 호	형 태			참 가 자		
			일 반	지 원	혼 합	계	초 등	중 등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부천)	032-682-1886		○		40	20	20
"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031-783-4300(606)		○		40		40
"	고양 청소년수련관	031-970-0031		○		40	40	
"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031-654-5400			○	40	40	
"	이천창전 청소년문화의집	031-636-0300		○		40	40	
"	군포 청소년수련관	031-390-1433			○	40	일반20 지원20	
"	안산 청소년수련관	031-475-1981		○		40	20	20
"	안산 청소년문화의 집	031-485-1318		○		30	30	
"	고양 청소년문화의 집	031-960-9681		○		40	40	
"	성남 수정 청소년수련관	031-740-5260		○		40	40	
"	연천 청소년수련관	031-834-8785		○		40	40	
"	부천 여성청소년센터	032-665-0924		○		40	20	20
"	안양 청소년수련관	031-443-5778		○		40	40	
"	군포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031-398-7982		○		40		40
강원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춘천)	033-255-6603		○		40	20	20
"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033-732-8920		○		40	40	
"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033-554-0411		○		40	20	20
"	철원시 청소년수련관	033-450-5360		○		40	20	20
"	고성 청소년문화의 집	033-682-1318		○		40	20	20
소계	19개소			17	2	750	530	220

구 분	시범운영 시설명	전화번호	형태			참가자		
			일반	지원	혼합	계	초등	중등
충북	충주시 청소년수련관	043-856-7802		○		40	40	
"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043-420-8400		○		40	40	
"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043-261-0700		○		40	40	
"	청원군 청소년수련관	043-297-9009		○		40	20	20
충남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041-631-5900		○		40	40	
"	부여군 청소년수련관	041-835-5502		○		40	40	
"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041-733-8503		○		40	40	
"	연기군 청소년수련관	041-863-7939		○		40	40	
"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041-930-3587		○		40	20	20
"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041-521-2861		○		40	40	
전북	술내 청소년수련관(전주)	063-278-8588		○		40	40	
"	정읍 청소년수련관	063-533-7920		○		40		40
"	효자 청소년문화의 집(전주)	063-236-7142		○		40	40	
"	익산 청소년문화의 집	063-857-6111		○		40	40	
"	전주 청소년문화의 집	063-273-5501		○		40	40	
전남	광양시 청소년수련관	061-761-1335		○		40	40	
"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061-270-8463		○		60	20	40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061-749-3804		○		60	60	
"	강진교육발전협의회	061-433-1131		○		40	40	
"	나주사랑시민회	061-332-9995		○		40	20	20
경북	안동와룡 청소년수련원	054-841-0511		○		60	40	20
"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054-785-6933		○		40	40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054-779-6714		○		40	20	20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054-245-6593		○		40	20	20
"	칠곡군 청소년수련관	054-979-6093		○		40	40	
소계	25개소			25		1,060	860	200

구 분	시범운영 시설명	전 화 번 호	형 태			참 가 자		
			일 반	지 원	혼 합	계	초 등	중 등
경남	진해시 청소년수련관	055-540-0214		○		40	20	20
"	봉림 청소년문화의 집(창원)	055-273-2117		○		40	20	20
"	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055-252-8319		○		40		40
"	거창 월성 청소년수련관(거창)	055-943-1923		○		40	20	20
"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055-670-2919		○		40	20	20
"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055-749-2258		○		40	20	20
"	하동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055-880-2064		○		40	20	20
"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055-346-2100		○		40	40	
제주	서귀포 청소년문화의집	064-762-1406		○		40	20	20
"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064-794-6260		○		40	20	20
"	서귀포 청소년수련관	064-739-8956		○		40	20	20
"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064-750-7256		○		40	40	
"	남제주군 신산청소년문화의집	064-730-1608		○		40	20	20
소계	13개			13		520	280	240
합계	100개		3	93	4	4,220	3,085	1,135

